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2면
도, 농업가뭄 극복 현장 대응 총력

11면
순창 농어촌기본소득 효과 뚜렷

전주매일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음 7월 9일) 제403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농협 주요기관 전북 이전 농생명산업 혁신 거점 육성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연구·산업·금융 하나로 연결 농생명 가치사슬 완성·균형발전 동시 실현할 전략적 선택"

K-푸드 수출 생태계·금융 플랫폼 구축 등 세가지 전략 제시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이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등 농협 주요 기관의 전북특별자치도 이전을 제안하며, 전북을 국가 농생명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은 20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농협의 전북 이전이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연구·산업·금융을 하나로 연결하는 농생명 산업 가치사슬을 완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전북은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농생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4개 국립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핵심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으며, 이들 기관의 연간 연구개발 예산은 1조 원을 넘어선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189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새만금은 첨단농업과 물류의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까지 자리하면서 연구·산업·금융을 아우르는 기반도 갖춰져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현재의 농생명 생태계가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 보급과 산업화, 금융 지원으로 연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수한 연구 성과가 농가와 기업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정책과 자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능 역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소멸 위기와 지역 농축협의 경영기반 약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농협이 연구 성과와 현장, 산업과 금융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은 농협 이전의 핵심 전략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이다. 전북에 집중된 농생명 연구개발 성과를 농협의 전국적인 조직망과 결합해 농업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함으로써 연구와 현장 사이의 단절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글로벌 K-푸드 수출 생태계 구축이다. 농가의 계약재배를 통한 원료 조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제품 개발·가공, 농협의 유통·물류망, 새만금 신항만을 통한 수출까지 하나의 일관된 플랫폼으로 연결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셋째는 산업 육성형 농생명 금융 플랫폼 구축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북의 금융 인프라와 농협금융지주를 결합해 기존의 단순 대출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신산업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까지 지원하는 투자형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연구원은 특히 농협중앙회의 정책·조정 기능뿐만 아니라 농협경제지주의 유통·경제 기능, 농협금융지주의 금융 기능이 함께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 일부만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농협의 핵심 기능을 전북의 농생명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북연구원은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은 특정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연구·산업·금융을 전북에서 하나의 거대한 가치사슬로 연결해 농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정 대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임진왜란 웅치전투 역사적 의미 재조명

전북도-완주군-진안군 승전기념 추도식 열고 호국영령의 넋 기려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도 미래세대에 호국정신 계승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개최한 '임진왜란 웅치전투 승전기념 추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도청 공연장에서 완주군 진안군과 함께 '임진왜란 웅치전투 승전기념 추도식'을 개최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올해로 434주년을 맞은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전라도로 진격하던 왜군에 맞서 관군과 의병이 완주와 진안의 경계인 웅치 일대에서 벌인 전투다. 치열한 항전으로 왜군의 전주 진격을 저지하며 호남을 지켜낸 중요한 전투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추도식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정담·황진·황박 장군과 정엽 종사관 등 웅치전투 참전 선열 후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호국정신을 되새겼다.

행사는 웅치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해 '2026 한국민영방송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JTV전주방송 다큐멘터리 '웅치'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크로스오버 예술집단 '국은예에트(etre)'의 식전 공연, 추도사와 추모 말씀, 추모 편지 낭독, 헌화·묵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대금독주 '청성곡·춤산조'와 살풀이춤을 선보이며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했다.

특히 올해는 웅치전투의 역사와 호국정신을 미래세대에 알리기 위해 처음 마련한 초등학생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지역 초등학생 대표 2명은 추모 편지를 낭독하며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또한, 웅치전투 관련 사진과 기념물 전시, 포토존 등 부대행사도 운영해 참석자들이 웅치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1592년 웅치고개에서 관군과 의병은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왜군의 진격을 늦춰 호남을 지켜냈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낸 호남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그 뜻을 미래세대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2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전북 지역성장펀드 결성식'과 벤처투자플랫폼 'J-피움' 행사에 이원택 도지사와 노용석 중기부 장관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36억 원 규모의 펀드 결성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성장펀드' 제1호 전북펀드 출범

중기부 등, 전주 라한호텔서 결성식 열고 출자자 모집 완료

전북자치도·전은·현대차·원광대 등 참여 1000억원 규모

전북특별자치도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성장펀드' 제1호 전북 펀드가 1,000억원 규모로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을 열고 전북벤처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성장펀드는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 투자 플랫폼이다. 중기부는 14개 비수도권 지역에 최소 1개 이상의 지역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4,5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의 모펀드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1월 '2026 지역성장펀드 참여 지방정부 모집공고'를 통해 대경권(대구·경북), 서남권(광주·전남), 전북, 대전, 울산 등 5개 지역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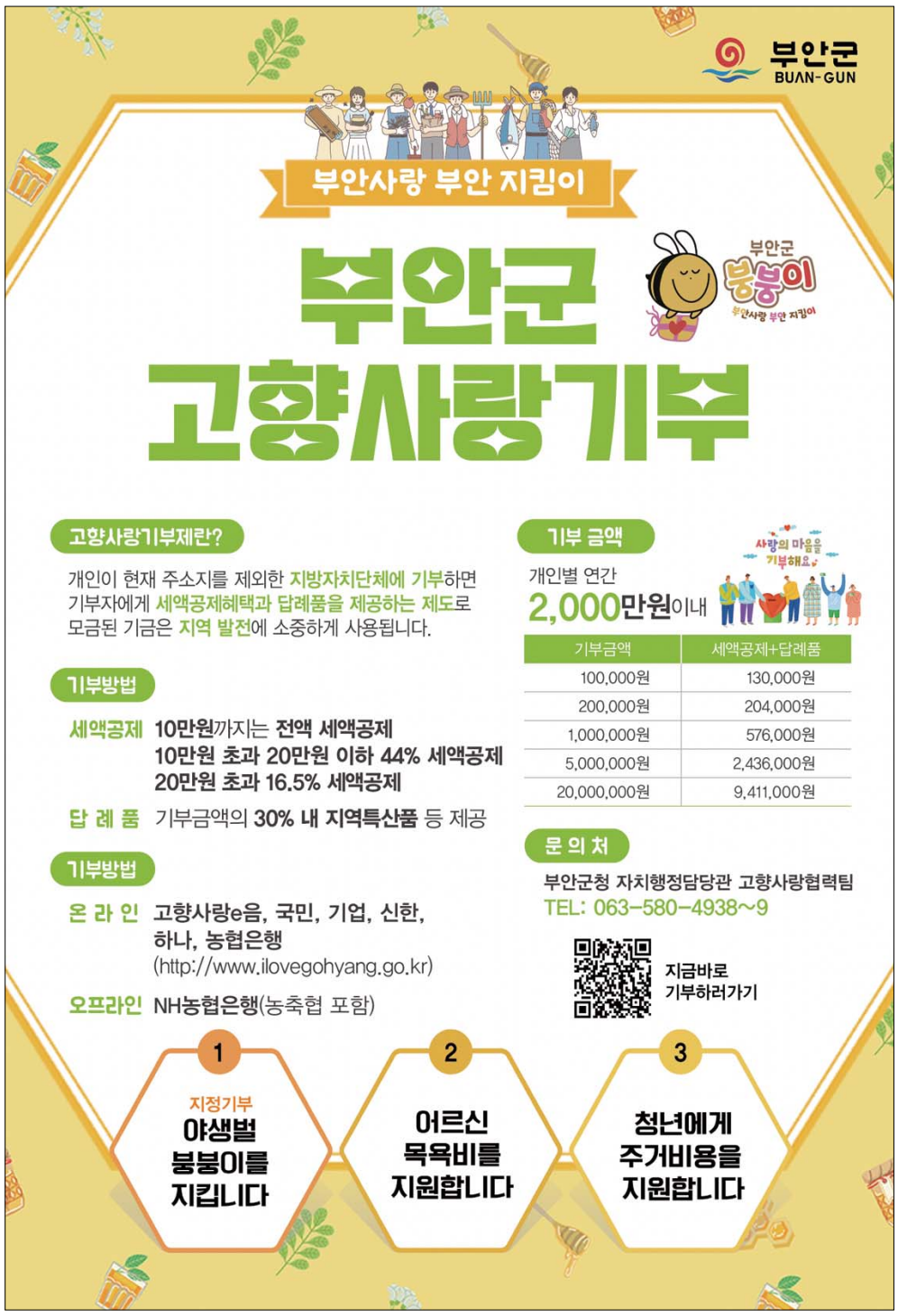
이 가운데 전북은 모태펀드 600억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김제·정읍 등 지방정부, 전북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 현대자동차, 비나텍 등 지역기업, 원광대학교 등 총 17개 기관이 참여해 1,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결성했다.

전북 지역성장펀드는 지역의 은행과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과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도 참여해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결성된 모펀드는 한국벤처투자와 지방정부, 주요 출자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투자 분야를 확정한다. 오는 9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총 1,8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인 노용석 제1차관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와 지방의원, 익산·정읍·김제 등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은행과 원광대학교, 현대자동차, 비나텍,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한국벤처투자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펀드 결성식에 이어 전북 유망기업 기업설명회(IR), 지역기업과 벤처캐피탈(VC) 간 1대1 투자 상담, 투자사와 지역기업 간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북의 창업·벤처투자 IR 브랜드인 'J-피움'과 한국벤처투자가 공동으로 유망기업 IR을 진행했다. 초기창업기업 3개사와 도약기업 4개사가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사업과 성장 가능성을 소개했으며, 지역기업 25개사와 투자사 10개사 간 1대1 밋업도 마련됐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전북 지역성장펀드는 지역의 대학, 은행, 선배기업, 도민의 뜻이 모여 출범하는 전북의 첫 투자 플랫폼"이라며 "전북 펀드를 시작으로 지역성장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해 벤처·스타트업을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